

아이는 말을 듣지 않는다.(교육심리 제 1차 보너스 과제)

보너스 과제를 소개받고 처음 나의 생각은 이걸 절대 못한다고 이걸 어떻게 하나고 생각했던 보너스 과제였다. 하지만 이 과제의 마지막 논문을 다 읽었을 때는 맞든 틀리든 여기에 관한 나의 생각을 피력하고 싶었다. 단순히 과제로서가 아니라 기존의 수업과 너무나도 다른 교육심리 수업을 들으면서 쌓아온 나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학습에 대한 그리고 진리에 대한 나의 자세를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9편의 논문 모두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9편의 논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상황 학습'이라는 말이다. 수업시간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상황학습론은 인간의 행위가 성립하는데 있어서 타자, 사회-역사적 인공물 그리고 상황의 중요성과 행위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카페에서 소개된 것처럼 논문은 그 성격에 따라 7:2로 나눌 수 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사한 주제를 다루는 논문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우선 7:2로 나누어진 부분에서 7에 해당하는 7편의 논문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7명)이 쓴 논문들이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7명이 거의 유사한 말을 하는 것 같다. 7편의 논문에서는 모두 학생들에게 상황학습 이론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특정 과목이나 교실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전통적인 교수법을 비판하고 상황학습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설계한다는 것이다. 나는 9편의 논문 중에서 7:2라는 소개를 듣고 7의 논문들을 먼저 읽었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또 나머지 2편의 논문을 읽었을 때 미처 내가 생각해내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놀라움과 앞선 7편의 논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인 사실에 약간 부끄러웠다. 지금 모든 논문을 다 읽고 교육심리 수업을 듣고 있는 지금상태(교육심리의 교재중 하나인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를 1독한 지금)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논문들은 박동섭교수님 논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늬만 상황학습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수박겉핥기식 상황학습론이다. 어떤 이론이나 시스템의 도입에는 그에 따른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준비과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스템이나 이론이 적용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그 대상이 그러한 상황(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론이 적용되는 상황)을 받아들일려고 하는지 그 상황이라는 연극에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상황학습은 물론 다른 곳에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주요한 곳은 학교이다.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이전의 수업방식과 다른 상황학습에 기초한 수업을 설계하여서 수업을 하였다고 하면 그 의도는 좋으나 학생들의 의지까지도 설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자는 학생, 떠드는 학생, 그중에는 또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만약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습 부진아로 판명되어야 할 것일까? 그리고 반드시 그 아이들은 부진하게 될 것인가? 아닐 것이다.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학교는 이런 아이들(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값매김’ 함으로써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질 것이다. 어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적용되는 대상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실제로 나는 이런 경우를 보았다. 나의 아버지는 혈압이 높으셔서 그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다. 병원에서 하루 3번 식후에 조제약을 드시면 2~3주안에 금방 떨어질 것이라고 의사가 처방을 하였다고 한다.(추측컨대 아버지의 혈압수치가 그렇게 크게 문제 될 만큼의 수치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환자도 아닌데 매일 약을 먹는 게 싫다고 하시면서 약을 드시지 않았다. 즉,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의사는 과연 이런 상황을 예상하였을까? 이 경우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나의 아버지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더 높아져서 건강이 악화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아니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는 약을 먹지 않는 대신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 규칙적인 관리를 통해서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압도 정상이 되고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 이렇듯 학습 대상은 순하지 않다. 로봇처럼 상황을 입력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각자의 개성이 있어서 어디로 달아날지 모른다. 정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둥근 공이다. 이렇듯 그 적용대상에 대한 이해가 먼저 논의되지 않으면 상황학습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일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 참여자가 없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수업 계획은 의미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상황이라는 것을 주면 이리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주의적 관점에 빠져 있는 것이다.

또한 7편의 논문에서 빠지지 않고 주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 인지적 도제학습이라는 말이다. 인지적 도제학습은 기존의 교수 설계에서 경시되어 왔던 현실과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 실제적 과제 수행 경험, 교사와 학생과의 긴밀한 상호작용, 토론을 통한 역동적인 학습을 중요시 한다. 지식이나 기능의 전수를 도모했던 전통적 도제 방법과는 달리 과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함과 동시에 시범을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인지전략의 차이를 보여주고, 교수적 지원으로 학생이 교사의 전략을 습득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지적,

메타인지적 기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수 방법으로 특정 기술과 방법의 효용성을 보다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차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박소영, 김석우 2007) 좋은 말이다. 만약 잘 길들여진 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학생이 인지적 도제학습의 능동적인 참가자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모두 인지적 도제학습에 능동적으로 참가한다면 우리나라는 학습부진아가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람은 똑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실과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학습, 실제적 과제 수행 경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실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존재할 수 없다. 유사한 상황이지만 결국은 교실 안에서의 상황이다. 교실이라고 하는 특수하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실과의 상황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것은 현실상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가 하나 떠올랐다. 예전에 초등학교때 우리반에 전학 온 친구(이하A)의 집에 처음 놀러가게 되었다. 그 친구 어머니께선 아주 상냥하신 말투로 ‘어머, 우리 A 친구구나 부담갖지말고 내 집이다 생각하고 놀다가렴’ 그때 나는 A의 어머니가 제시한 내 집처럼 편안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집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집이었고 더군다나 A는 전학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당시 썩 친하지 않은 사이였기 때문이다. 목이 말라도 물 한잔 달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불편함이 계속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불편하게도 A의 어머니는 나에게 이왕 놀러왔으니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셨다.(정말 상냥하신 얼굴로 제안하셨다) A의 어머니에게 집에 가야하는 사정을 말하고 열린 그 집에서 나왔다. 오히려 A의 집 대문을 나서니 불편한 마음이 사라졌다. 이 경험이 지금 이렇게 다시 상기될 줄은 나도 몰랐다. 아무리 편하게 하려해도 우리 집이 아닌 친구 집에서 우리 집처럼 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학교라는 상황에서 실제생활의 상황을 연출하여서 학습한다고 하여도 그 그것은 학교에서의 상황일 뿐인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학습과 밀접하게 연관 된 것이 학습 전이인데 학습 전이는 이전에 학습한 것이 현재의 학습이나 상황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학습 전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학교에서는 또 학습 부진아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하지만 학습 전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심리 시간에도 예를 들었듯이 커피 구입의 예를 들면 잘 알 수 있다. 이론과 실제의 괴리는 존재한다. 어찌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더 진리에 도달하는 길일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론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변수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학습 전이를 잘 실현하고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을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하려면 현실(저장거리)로 나가야 한다. 수학시간에 배운 잔돈 계산과 구매가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으면 5일장이나 3일장 같은 재래시장을 찾아가야 한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7편

의 논문에 나와 있는 학습전이론의 내용에는 학교교육이 중심이 되어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모든 사회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진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많은 교육의 장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모든 것에 다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배우기 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와 상황들과 사회라는 것과 만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부진아들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노력할 것을 권유하고 학생은 이러이러 해야 한다는 어떤 틀에 학생을 넣으려고 한다. 먼저 그 학생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 하지 않고 말이다.

이러한 만남의 연속에서 학교라는 상황과 현실이라는 상황은 다른 상황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다른 상황인 현실에 그대로 적용가능 하다고 믿는 것은 마치 개울에서 잡은 올챙이를 수돗물에 넣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학교에서 배운 것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실제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현실세계를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배움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습 전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무책임한 개념인 것이다.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학습과 학생 이전에 인간이 먼저이다. 한 사람이 이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때 그다음 학습이 있고 학생이 있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것 어찌면 그것이 상황학습을 적용받는 대상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 7편의 논문에 나와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상황학습의 완성으로 가는 정도(正道)이다.

이 과제를 하면서 깊이 아는 것이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암기하고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아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한다. 그것이 학문이나 글을 씀에 있어서도 나타난다. 중립이라는 입장에 서려하고 자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싶어 하고 자기 자신이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 이 과제를 하면서 나 또한 7편의 논문을 먼저 읽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뒤이어 읽은 2편의 논문과 ‘심리학은 아이들 편인가?’ 이 책을 읽고 초반에는 너무나도 괴로웠다. 나 자신도 7편의 논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대한 자책과 그리고 이제까지 나를 감싸던 보통, 당연함이라는 바위가 깨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너무나 아팠다. 아니 지금도 너무 아프다. 하지만 예전보다 생각이 많이 유연해진 것을 느낀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건강한 혼란스러움을 기대하며 또 다음 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